

# 18世紀 프랑스 옷칠 가구에 관한 小考

## A Study on the French Lacquer Furniture in the 18th Century

韓京熙 Han Kyung Hi

### ABSTRACT

18c, statues of French Lacquer Furniture are worthy of close attention in aspects of its quantity, quality and aesthetics in production. This kind of furniture have been developed, devising the its own original techniques, though it was influenced and begined with the imported from China. Therefore, the main currence of color with black tones had changed to French style, with somewhat repleting to chinese ornament. This characteristics is distinguished in furniture

which is expressed as a main theme. It can say that it has the meaning of lacquer furniture as a part of chinoiserie prevailing at that time that social consensus through the political supports for upbringing furniture industry, a close relationship of clients, merchants, and decorators with appreciative eyes, and the ceaseless persuit of the new had made resulted in concurrence of aesthetics between the eastern world and the western world.

### I. 序

東西洋을 莫論하고 서로간의 文化, 藝術에 對한 關心은 漠然한 異國에 對한 憧憬이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18世紀에 있어서 '東洋'은 西歐人들에게 끊임없는 魅惑의 對象이었으며 더욱이 中國에 對한 프랑스의 熱狂은 전 18世紀를 통하여 타피스트리, 도자기, 家具 심지어 建築, 庭園 내지 생활 속에까지 중요한 影響力을 낳았다. '中國'이란 用語는 오히려 幻像의 나라, 유토피아로 規定지어졌고 珍奇함, 새, 동물들, 과일과 크고 이상한 꽃들로 豐足한 自然으로 性格지어져 그들의 想像力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러한 想像力의 열매는 마침내 '시놉즈리(Chinoiserie)'<sup>1)</sup>란 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실 18世紀 이래 中國에서의 自由奔放한 線의 驅使, 優雅한 形態, 技術上의 妙技 그리고 魅惑적인 色彩 등은 유럽예술과 並行되어져 결국 이것이 유럽인의 嗜好에 附屬되어 로코코 양식의 발전과 함께 완벽한 통합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統合은 'Louis XV Chinois'라는 命名까지 나오게 되었다<sup>2)</sup> 특히 이 점은 옷칠가구에서 두드러진다.

本稿는 그 對象을 루이 15세 時代의 옷칠가구에 局限시켜 考察하고자 하며 중국 옷칠을 그대로 프랑스 家具에 이용하였거나 또는 그것을 模倣, 改善하여 만든 가구로 함을 밝혀둔다.

中國의 옷칠가구가 어떤 經路로 프랑스에 들어가 製作 되었으며 그들 가구의 한 章을 열어나갔는가를 살펴봄으로 그 意義를 갖는다고 보겠다.

### II. 시놉즈리(Chinoiserie)의 歷史的 背景

#### A. 中國과의 接觸

18世紀가 동양예술로서 흥미를 일으킨 첫 契機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市場形成, 유럽왕족들이 中國產 蒐集品을 갖게 되기까지는 포르투갈에 의한 희망봉 발견 이후 즉 16세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유럽대륙 중 처음으로 極東地域과 직접 海上交易의 길을 발견한 나라는 포르투갈<sup>3)</sup>이다. 이에 반하여 스페인<sup>4)</sup>, 영국<sup>5)</sup>, 네델란드<sup>6)</sup>, 프랑스는 中國 과의 因緣이 상당히 늦은 편으로 그중 프랑스는 極東과의 交易를 主管한 마지막 나라였다. 사실 프랑스의 경우 交易 이전에도 이미 中國의 珍貴한 物품에 조금씩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의 공급선은 주로 포르투갈인들<sup>7)</sup>이었다. 당시 프랑스 宰相이었던 콜베르(Colbert)는 1660년에 中國商社(la Compagnie de la Chine) 곧 이어 1664년 印度商社(la Compagnie des Indes)를 열어 더 이상 네델란드의 獨占權을 묵인하지 않으려는 試圖가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 회사는 네델란드처럼 中國 심지어 일본과의 활발한 직접교역이 아닌 中國 仲介人으로 부

터 원하는 물품을 받는 정도였다. 商社를 통한 해상교역 이외에도 外交使節 및 예수회 선교단의 役割을 들 수 있다. 특히 1686년 사이암(Siam) 大使의 出現은 극동의 모든 것에 대한 熱狂을 갖게 한 契機를 만들었다. 당시 사이암은 프랑스의 堅實한 傳道 장소였고 이러한 이유가 외교적 관계로 까지 이어져 루이 14세로 보내어진 外交使節은 새로운 동양예술을 접할수 있는 좋은 수집의 기회를 갖게 하였다. 17世紀 후반기 中國에 대한 일반적인 熱狂은 도자기, 옷칠가구를 수집하는 怪癖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아직도 직접교역의 결과는 아니었고 이러한 계기는 Amphitrite船이 中國沿岸 바다에 머물수 있는 허가(1698-1703)를 받게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 배가 廣東에서 구입한 도자기, 옷칠가구, 천등을 남트에 내리면서부터 전 프랑스내에 中國裝飾品들이 퍼져 나갔으며, 곧이어 새 中國會社가 설립되고 北京에 예수회 선교사가 도착하면서 제 2단계로 직접적이고 확실한 接觸이 가능케 되었다. 王家의 財産目錄은 이미 많은 수의 中國產 物품들로 궁정을 裝飾했음을 알려 주고 있고, 18世紀 初 그 物품들은 프랑스시장을 정도 이상으로 占有, 侵害한 나머지 프랑스 製品과 경쟁대상의 物품은 輸入規制하는 法令까지 나오게 되었다.<sup>8)</sup> 루이 14세 治下때 수입된 中國產 裝飾品은 현재 별로 남아있지 않다. 루이 15세 時期의 많은 제작물들은 지금껏 保存이 잘 되고 있으며 그 수입품들은 17世紀와 거의 비슷한 경로 즉 네델란드인을 거처거나 프랑스의 印度商社, 또는 直接交易를 통해 이루어 졌다.

#### B. 시놉즈리 發展의 要因

첫째, 이는 당연히 中國과의 交易에서 시작된다. 사실 中國과 충분한 交易量을 가졌던 포르투갈은 언제나 過剩된 供給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

1) 이 用語는 東洋 특히 中國에서 온 物品들에 의해 影響받았거나 模造되었던 西洋에서 만들어진 藝術品 즉 裝飾美術品에서만 制限되어 쓰인다. Gruber, A. 1984, Chinoiserie : l'influence de la Chine sur les Arts en Europe, XVIIe-XIXe Siècle, Bern, P.15.

2) 「Le Louis XV Chinois」 <connaissance des Arts>, No 43 (Septembre 1955), P.30. (中國취미의 Louis XV 라고 表現할수 있다)

3) 1516년 中國에 도착한 최초의 포르투갈船이 廣東港에 寄港하였다.

4) 스페인은 그들 배의 방향을 미국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별 進展이 없었다.

5) 英國은 1579년 이스탄불에 세워진 지점을 이용, 隊商들로부터 物품을 購入하였고 1612년에 사이암에 그 基礎를 내뒀다.

6) 네델란드는 1600년부터 廣東에 발을 내딛기 시작, 2년후 印度商社를 設立, 새로운 商業去來의 轉換期를 맞이하였다. 그들의 거래 솜씨는 매우 良質의 고급품을 수입대상으로 삼을 만큼 대단했으며, 암스테르담 은 마침내 창고역할의 중요도가 되었다.

7) Jarry, M. 1981, Chinoiserie, Le Rayonnement du goût chinois sur les Arts Décoratifs des XVIIe et XVIIIe Siècles, Friburg, P.12.

8) Koechlin, R. 1910. 「La Chine en Europe au XVIIIe Siècle」, Gazette des Beaux-Arts, Paris, PP. 89-92.

놉즈리를 創出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供給이 충분치 않았던 나라는 그 不足함으로 인한 보다 切實한 욕망이 中國 수입품에 對應하는 것 卽 模造品 나아가 시놉즈리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 追求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이다 여기에는 자연히 값이 비쌌다는 이유가 添加 되어야 한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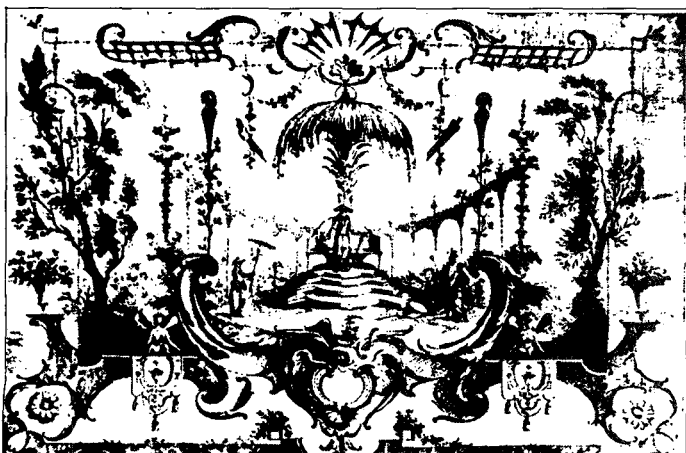
둘째, 루이 14세는 그의 末年에 莊重한 프랑스 예술내에 들어오는 시놉즈리의 기이한 無秩序에 對應하여 1709년 8월 27일 동양(중국, 인도)에서 온 천, 비단 등을 禁止시키는 法令을 布告하였다. 그 이후 1714년, 1721년, 1723년, 1730년등 계속하여 禁止措置가 制定, 布告되었으나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와 상인들은 그들의 去來를 감추지 않았다.<sup>10)</sup>

따라서 이 몇몇의 禁止措置는 逆으로 시놉즈리의 需要增加를 刺戟했을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셋째, 마르상 - 메르시에 (marchands-merciers)<sup>11)</sup>의 役割이다. 특히 手工業 및 家具分野 (주로 소가구)에서 이들의 莫強한 同業組合에 따른 활동은 매우 刮目할 만하다. 家具가 물론 그들 손에 의해서 製作되었던 것은 아니나 主要 에베니스트(Ebéniste)들이 그들의 創造力과 精神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행되는 가구의 전문인으로써 異國 趣向(exotisme) 특히 옷칠가구의 수입업자인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樣式을 추구하며 고객을 刺戟, 誘致하는 가운데 프랑스 가구의 두축면 즉 製作과 普及에 큰 영향력을 과시 했던 것이다. 세브르(Sèvres)產 磁器의 大宣傳者 - 磁器판을 가구 전면 및 윗판에 도입시킨 것은 그들의 idea이다. 각기 다른 직업사이의 調整役制 - 에베니스트와 브롱지에 (bronzier, 청동주조공), 수입된 옷칠판을 分離하여 當時 家具에 재생시킨 점, 中國옷칠의 模造品인 베르니 마르탱(Vernis Martins)을 後援한 점등은 모두 그들의 功勞였다.<sup>12)</sup>

넷째, 眼目높은 顧客의 注文이다. 이들은 상인(marchands-merciers)들과 밀접히 연결되면서 혹은 직접 匠人들과 交涉하던 상류 사회의 인사들이었다. 당시 유명했던 商人 - 듀보(Lazare Duvaux)의 일기장은 18世紀의 家具去來에 關한 귀중한 資料로서 中國애호가, 거래된 中國장식품 등을 밝히면서 매 쪽마다 왕실고객 및 마담 드 뽁빠두르(Madame de Pompadour)를 적고 있다.<sup>13)</sup> 그녀는 18世紀 프랑스 가구 藝術發展에 마리 앙투와네트(Marie Antoinette)와 함께 큰 影響을 끼쳤고, 타고난 권리로 富裕했던 점과 예술에 대한 안목 내지 정열로 집 꾸미기에 쏟았다. 그 一例로 죽기 전 날까지 이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가구속에서도 예술품 및 家具사기를 그치지 않았을 정도였으며<sup>14)</sup> 中國과의 交易에 關한 재정적인 후원, 그 輸入品의 大衆化, 세브르 磁器工場의 후원 등으로 裝飾美術分野에 功勞가 컸다. 그녀의 家具注文은 주로 듀보를 통해 이루어졌고<sup>15)</sup> 이 特權層을 단골로 두었던 가게는 다시 이점을 宣傳으로 삼아 새로운 購買의 轉換을 귀족층에게 만들어가면서 유행시켰다.

새로운 것에 대해 애를 태우던 顧客들은 또한 匠人들과 직접 연결되어 그들의 支持者가 되어 裝飾家와 文樣家들로 부터 提案받은 그림이나



<사진 1-1>문양의 예, Watteau. 출처: La peinture Décorative au XVIIIe siècle

판화를 提示해 주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다섯째 요인인 裝飾, 文樣家들의 貢獻을 들 수 있겠다. 그들은 그렸고 퍼뜨렸고 모델과 이미지를 주었다. 中國은 그들에게 있어 幻想적인 꿈의 나라였으며 모든 자유로움이 허용되었고 異國趣向이 모든것을 默認해 주었다.

이들 장식, 문양가들은 루이 14세 治下의 장 프로미에 베랭(Jean Lerberain 1640-1711)을 필두로, 그 다음 세대인 오드랭(Audrain), 질로트(Gillot), 와또(Watteau)로 이어져 좀더 환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리고 諷刺적인 요소가 결합여진 中國의 표현방법으로 바뀐다. 프랑스에 예술가에게 유럽전체를 席捲할 수 있는 시놉즈리의 기회가 到來했다. 즉 로코코樣式과 일치되어 유럽의 裝飾文樣과 中國要素를 合致시킴으로써 중요한 양상을 나타냈던 것이다.

와또(A. Watteau, 1684-1721)의 뒤를 이어 그의 영향을 받은 부세(F. Boucher, 1703-1770) - 異國趣向繪畫의 두드러진 실력가가 등장한다. 그는 18世紀 중 구성에 있어 가장 환상적인 영감이 넘치는 예술가로서 그가 제시한 시놉즈리의 모델들은 타피스트리나 도자기에



<사진 1-2>문양의 예, Boucher

출처: La peinture Décorative au XVIIIe siècle



<사진 1-3>문양의 예, Pillement

출처: Décoration chinoise et de Geut chinois

있어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中國原本에 대한 고려부족으로 대부분 中國 옷으로 변장한 유럽인이 등장하곤 한다.

이외에도 오펜노르드(Gilles Marie Oppenordt, 1672-1742) - 건축가, 도안설계가, 판화, 뤼노(Nicolas Pineau, 1684-1754), 메이 쏘니에(Juste Aurèle Meissonnier, 1695-1750), 라쥬(Jacque de Lajoue, 1686-1761), 휴에트(Christoph Huet, -1759) - 마차회 화가, 후레쓰(Jean Antoine Fraisse) - 화가, 장식문양가 등이 있으며 18세기 末 뤼렘망(Jean Pillement, 1728-1808)에 이르른다. (사진 1-1, 1-2, 1-3 참조)

이런 一連의 裝飾文樣家들은 畫家 및 建築家로서의 그들 本然의 活動을 벌이면서 同時에 이 시놉즈리에 關한 貢獻을 했던 것으로 지금도 그들이 提示했던 모델들은 판화 및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裝飾文樣家들의 활약은 本稿의 主題인 옷칠가구의 文樣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그 文樣을 누가 供給했는지 그 出處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9) Gruber, A 1984, P. 17. Koechlin, R. 1910, P. 94.

10) Havard, H. (s.d.), Dictionnaire de l'Ameublement, Tome 1 Paris, Colonne 813.

11) 공급가이며 동시에 판매인을 뜻하는 상인, marchand과 잠화상인을 뜻하는 mercier의 복합어이다.

12) Verlet, P. 1956, Les Meubles Français du XVIIIe Siècle, Tome Ebénisterie, Paris, PP. 30-31.

13) Guerin, J. 1911, La chinoiserie en Europe au XVIIIe Siècle, Paris, préface.

14) Cordey, J. 1938, Inventaire des biens de Madame de Pompadour, rédigé après son décès, Paris, P.IX.

15) Verlet, P. 1982, P. 4.

다만 지금으로써는 막대한 양의 수입 옷칠가구로 인하여 그 文樣의 소재공급이 충분했기 때문에 또 그 文樣이 프랑스인들의 嗜好에 맞아 새로운 모델이 요구되지 않았으리라 추측하면서 이 問題는 다음 機會에 割愛하기로 한다.

결국 이 모든 요인들은 18세기 프랑스 裝飾美術의 社會的 背景, 프랑스家具의 美를 크게 左右한 根源적인 요인들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들 요인이 단지 시놉트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시놉트리는 단지 18세기 프랑스에서 새로운 것을 追求하면서 로코코 樣式과 合致된 하나의 가지라는 점이다.

### III. 옷칠가구

본항에서는 중국의 옷칠가구가 프랑스에 수입된 후 그들 가구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에서 그 두나라에 관련된 옷칠가구의 종류는 무엇인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 A. 中國內需用 옷칠家具<sup>16)</sup>

##### 1. 朱色彫刻 옷칠家具

laque rouge cinabre sculpt dit "laque de Pekin"  
(carved and marbled lacquer, 剔紅, 北京漆)

이 옷칠의 製作은 주로 北京에서 이루어졌으며 北京漆이란 명칭은 1680년 경부터 이다. 제작방법은 여러 층의 朱漆 때로는 黃, 綠, 黑色을 교대로 두껍게 입힌 다음 - 이때 各漆의 層은 완전히 乾燥되고 光澤을 낸 후에 이루어져 심지어 36번을 反復하는 경우도 있다. - 조각도로 장식모양과 스타일에 따라 깊거나 혹은 얇게 옷칠의 피복을 파는 형식인데, 파여진 文樣의 깊이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칠효과도 볼수있으며 (黃, 綠, 黑色의 칠을 교대로 한 경우) 매우 힘찬 裝飾效果를 갖는다. 文樣의 主題는 꽃이 가장 많고 龍, 鳳凰, 새등의 순으로 산수도는 별로 많지 않다.

이 옷칠가구는 당시 中國 君主들을 위한 제품이었으며 유럽으로는 수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2. 色入 옷칠家具

laque incisé et color dit "laque cuir"(filled in lacquer, 가죽漆)

오래된 가죽과 같은, 그러면서 매우 값진, 값비싼 효과를 갖는 이 옷칠은 金의 加筆效果와 함께 精誠을 요하는 種類이다.

먼저 나무위에 고운 아마 내지 삼포를 입힌 후 그 위에 石膏칠을 칠한 다음 여러층의 朱漆을 乾燥, 光澤시키며 계속 입힌다. 필요한 두께가 이루어지면 裝飾文樣이 V형으로 파여지고 다른 색의 칠을 그 자리에 挿入시키는데 輪廓線으로 금빛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色調의 부드러운 효과를 주는 동시에 表面의 均一化를 위하여 닦아 윤을 내면서 이 작업은 끝나게 되는데, 사용되는 색조는 綠, 褐, 黑色 및 강렬한 赤色, 黃土色 등이다. 매우 淡泊한 容貌이나 금빛 輪廓線으로 熱情的이다.

이 옷칠가구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숫적으로도 많은 편인데 예를 들어 탁자, 의자, 장, 쥬 등이다.

##### 3. 상감 및 조각된 옷칠

laque incrust et gravé (mother-of-pearl lacquer)

이 옷칠은 이미 唐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技法이 여러가지이다. 먼저 平脫(incrustation)이라하여 나무판 위에 옷칠을 바르고 그위에 도료칠을 한 천을 입힌 후 금, 은, 나전 등의 잘려진 주제를 붙인다. 다시 새 옷칠이 덮히고 乾燥시켜 옷칠과 금, 은, 나전 등의 材料와의 表面이 같아지도록 갈아서 表面에 윤을 낸다.

家嵌이라 부르는 技法은 완전히 乾燥된 옷칠위에 裝飾文樣을 파내어 中國語로 泥子<sup>17)</sup>라고 하는 도료를 이용, motif를 삽입시키는 것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전칠기의 技法은 물론 이 옷칠의 種類인데, 명에 이르러서는 여러 단단한 종류의 돌 즉 玉, 水晶, 珊瑚, 터키석등이 象牙나 색유리와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表現方法이 자유스러운 편이며

꽃, 人物, 山水 등이 아라베스크 文樣, 多色의 配合와 함께 調和를 이루며 床의 上板이나 장 문짝에 쓰였다.

#### 4. 繪畫手法의 옷칠가구

laque peint (painted lacquer, 花漆)

이 옷칠의 技法은 명, 淸시대에 궁정내에서 크게 유행하던 것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 즉 장, 쥬, 탁자, 의자 등이 그들이다. 匠人들은 黑色 또는 褐色 背景에 금빛 또는 多色의 粧飾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는데 항상 그림 효과를 내는 繪畫의인 手法의 적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凹凸 浮彫로 表現되기도 하였다. 中國語로 花漆이란 말로 표현된다.

#### 5. 코로만델 옷칠가구

laque dit coromandel (coromandel lacquer, 刻灰)

18세기 유럽에서 매우 인기를 끌던 이 옷칠은 中國語로 刻灰라고 하며, 프랑스에서는 '코로만델 옷칠(coromandel laque)' 영국에서는 'work of Bantam'이라 했다. 그 이유는 유럽을 향하여 수출되던 장소를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종류는 간단히 말하여 옷칠작업, 彫刻하여 새기는 작업, 多色으로 칠하는 작업의 組合이라 할 수 있으며 겉보기에 옷칠이라기 보다는 유성안료 처럼 보이는 게 특색이다. 주요생산지는 北京의 서남쪽에 위치한 河南으로써 17세기 중반 明나라 末期에 처음으로 이 옷칠가구와 屏風이 제작되었고 淸의 강희대제 때 그 絶頂을 이루었다. 사용된 裝飾文樣은 매우 多樣하다. 즉 人物山水圖, 戰鬪 및 사냥장면, 궁정에서의 接見 또는 좀 더 자유로운 표현으로 새(공작, 따오기 등)나 꽃이 이용되었는데, 屏風의경우 거의 언제나 中央의 主題部分, 가장자리에 文樣 띠를 두르는 形式으로 되어 있음이 共通點이다.

#### B. 輸出用 中國 옷칠가구

유럽으로 수출된 中國옷칠은 그 裝飾手法에 있어 낮은 浮彫로 된 것, 옷칠표면위에 그린 것, 彫刻하여 새긴 후 挿入한 것 등으로 구분시킨 의견도 있다.<sup>18)</sup> 이는 前項에서 살펴본 中國옷칠 중 朱漆彫刻옷칠을 제외한 다른 4종류가 이에 相應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중 코로만델 옷칠은 莫大한 양의 屏風수입으로 그 예가 가장 많으며 繪畫手法의 옷칠가구(laque peint)의 예도 쉽게 눈에 띄고 있다.

中國가구 중 유럽으로의 수출대상은 屏風과 장, 쥬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코로만델 屏風은 전 유럽에서의 人氣製品이었기 때문에 비록 유럽시장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닐지라도 팔릴 수 있다고 判定되던 17세기 말에서 18世紀初 大量으로 수출되어 졌다.<sup>19)</sup> 屏風은 거의 언제나 12 쪽으로써 앞뒤 兩面 모두 옷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이 屏風의 가운데를 갈라 兩面을 모두 실내의 벽판으로 이용하기도 했으며 가구에 다시 이용한 경우도 많다. 초창기 수출용 가구들은 검정색 바탕 위의 금빛장식으로 된 매우 儂雅한 모습이었으나 그 構造는 가벼운 나무, 약한다리, 얇은 널판지 등 가냘프고 약했다. 심지어 어떤가구들은 輸出包裝을 위한 상자 내에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家具를 여러部分(상단부, 몸체, 다리 등)으로 分離하여 製作, 船積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런 수출용가구는 유럽에 도착된 후 組立되었는데<sup>20)</sup> 이 過程에서 유럽인들은 裝飾과 形態등을 多樣하게 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 변화를 추구

16) 本項을 위하여 參考한 書名

Beurdely, C. et M. 1979, Le Mobilier Chinois, Fribourg, PP. 97-142. 다섯종류의 옷칠의 명칭은 佛語名을 韓國語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함이 있음을 밝혀둔다. 영어명칭을 참고로 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17) 계·진사·돼지피·옷칠이 그 재료이다.

18) Jourdain, M. and Jenyns, R.S. 1950, Chinese Export Art in the 18th Century, London, P. 18.

19) 앞글, P.21.

하였다.

한편 유럽의 가구도 中國으로 보내어지고, 그 모델, 그림 및 책이나 카탈로그에 수록된 것의 影響을 받아 유럽가구가 中國에서 複寫되기도 하였다. 이 때 中國人들은 다양한 변화를 가하기도 했는데 그 한 예로 龍의 형태로 된 다리이다. 영국의 경우 장의 모델, 심지어 匠人들은 직접 보내어져 유럽시장을 위한 製品製作過程을 익히게 하였다.<sup>20)</sup>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옷칠을 위하여 가구를 中國으로 보냈다는 의견은 학자마다 분분하여 'le mobilier chinois(중국가구)'의 著者 Césile과 Michel Beurdelez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즉 프랑스 가구匠人들은 대부분 이미 결정된 크기의 옷칠 판을 中國으로 注文한 뒤 그것이 到着된 후 얇게 두께를 줄인 다음 家具의 배부른 면 혹은 평탄한 면에 사용하였다.<sup>21)</sup> 물론 이 경우는 프랑스에서의 옷칠開發이 本格的으로 이루어진 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漆器와 陶磁器의 유럽생산이 中國으로 부터의 수입을 막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유럽시장을 確固히 掌握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2)</sup>

그러나 수출용 옷칠의 質은 精誠이 缺如된, 거친솜씨의 가구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廣東 등의 海外支店에 監禁되어 外출이 금지되었던 유럽인 공급자들은 東洋의 眞美에 관한 常識이 缺如된 채 수출용 제품에만 만족했어야 했고 때로 공급량이 부족 할 때에는 印度나 사이암 등 이웃 나라 仲介人 등에 의해 제작된 模造品을 유럽에 가져왔던 것이다.<sup>23)</sup> 특히 繪畫手法의 옷칠(laque peint) 경우, 걸보기에는 아름다우나 最上品의 작업실에서 제작된 옷칠의 質과 優雅함이 缺如된 거친제품이 유럽으로 수출되었고 이를 프랑스에서는 '中國의 옷칠 또는 와니스'(laque ou vernis de la Chine)라 하였다.<sup>24)</sup> 이렇게 質이 떨어졌던 또 다른 이유는 製作過程에서 서둘렀고 또 유럽기호에 너무 충실히 제작되어진 결과였다. 즉 긴시간을 요하는 옷칠工程에서 中國人들은 미리 만들어 놓지않고 거의 유럽인들의 趣向에 맞는것을 제작하기 위하여 배의 도착을 기다렸다. 따라서 배의 船積시까지 그 工程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製品質이 우수하지 못한 이유가 되었다.<sup>25)</sup>

### C. 中國産 옷칠板을 이용하여 만든 프랑스가구

옷칠가구제작에 있어서 가장 簡單하고도 效果의인 방법이 바로 中國에서 온 板을 그대로 使用하는 것이다. 1730년경 부터 옷칠板을 당시 프랑스가구 몸체에 붙이는 유행이 있었다. 듀보나 다르날트 등의 商人들이 中國에서 수입된 옷칠板이나 屏風, 靄 등에서 떼어 낸 옷칠板을 이용케 했음은 이미 밝힌 바이다.<sup>26)</sup> 이는 프랑스가구의 황금기라 불리우는 이 시기에 에베니스트들의 가장 성공한 가구 중 하나인 것이다. 가구의 형태가 直線의일때 그 作業工程은 보다 簡單하다. 그러나 배가 불룩한 表面은 보다 복잡한데 루보(Roubo)의 "L'art de Ebéniste" (3e partie du tome 3)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알수 있다. 즉 板을 세로로 쪼개어 2-3mm의 두께로 얇게 만든 다음 가구 몸체 위에 아교, 뜨거운 철판, 건조에 필요한 더운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마케트리 방식으로 붙이게 된다. 이렇게 板이 완성되면 에베니스트에게 보내어져 금빛 靑銅鑄造의 사용과 함께 완성되어 그들의 捺印이 가구에 새겨지며 끝나게 된다.

### D. 프랑스인들에 의한 옷칠가구

中國이나 極東에서 수입된 제품이 유럽예술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왔으나 너무나 高價이었기 때문에 옷칠제품은 곧 模倣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옷칠의 技術方法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中國옷칠과는 완전히 별개의 방법으로서 그 技術開發의 限界가 많았다. 즉 걸보기에는 중국과 비슷하나 質과 堅固性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옷칠개발의 구체적인 試圖는 17세기 부터 시작되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이유 宮殿을 위하여 소위 국왕의 가구를 위한 王室工匠인 고블랭(Gobelins)에 외국의 제일급匠人들을 불러 들였는데 이 고블랭에는 또한 中國식 작품을 위한 특별한 작업실이 운영 되었으나 현재는 그 遺物이 남아 있지 않다. 이후 고블랭에서는 계속 동양 옷칠을 生産하기 위한 努力이 꾸준히 계속 되었다. 이외에도 Bourbon Condé의 Louis Henri公(1692-1740)이

設立한 상띠(Chantilly)의 工場도 옷칠 開發에 힘을 기울였다. 당시의 傳記作家 Louis de Sanrobert는 1760년경 이 공장에서 생산된 옷칠은 매우 優秀하여 中國漆과 區別이 어려운 정도라 記述하고 있으나 상띠에서 제작된 옷칠의 구분은 현재로서 불가능한 실정이다.<sup>27)</sup>

마침내 프랑스 옷칠 開發에 있어 큰 轉換點이 생겨났다. 1731년 마르뎡(Martin)형제들이 개발한 所謂 베르니 마르뎡(Vernis Martins)이 그것이다. 그들은 1748년 中國칠을 위한 王室工匠을 設立하는 한편, 豆보(商人)와 緊密한 관계 속에서 그의 刺戟, 後援을 받아 中國적 이면서도 프랑스적인 그리고 결국 루이 15세, 뽕빠두르 부인 등이 찾던 愉快하고 明快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초기 그들의 작품은 中國이나 日本옷칠(검정색 바탕위의 금빛장식)을 模倣하던 단계였고 후에 그 색과 주제가 매우 다양해졌다. 그들이 사용한 赤, 靑, 綠, 白色 등은 언제나 中國을 모방한 프랑스 취향의 분위기였고 반면 흑색 바탕위의 금빛 浮彫裝飾은 너무나 中國적이어서 原作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였다.<sup>28)</sup> 그러나 그들은 中國 스타일의 복사작업을 이내 끝내고 프랑스 趣向의 裝飾 - 꽃, 田園적인 風景, 神話主題 등을 취하여 그들 독자적인 스타일을 개발해 나갔다. 사실 17세기 이후 옷칠의 大衆化로 인한 그 기술개발에 관한 많은 책이 出刊되었다. 그중 1772년 파리에서 出刊된 와뎡(Watin)의 'L'Art du Peintre Doreur et Vernisseur-畫家, 金鍍金工 그리고 漆工을 위한 藝術 - 은 전유럽에서 이 주제에 관한 가장 훌륭한 책으로써 黑色바탕위에 金, 銀 裝飾의 기법을 中國과 日本의 것처럼 하기위한 기술을 적어놓고 있다.

프랑스에서 개발하여 만든 옷칠은 베르니 마르뎡을 위시하여, 회화적인 기법의 표현이 압도적이다. 이들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마차, 썰매, 부채 심지어 가구에까지 베르니 마르뎡을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지팡이, 컵, 생반, 금속제품에 까지 그 용도를 넓여나갔다. 순수한 프랑스 옷칠가구의 장식과 스타일은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 다르게 나타난다. 즉 시놉트리의 유행초기에는 中國의 원작이나 예수회선교사들의 報告, 陳述에 의거하여 가능한한 정확히 복사하는 것이 慣例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복사 행위는 없어지고 유럽풍의 장식 즉 마둑판 무늬, 사랑을 나타내는 장면(scènes galantes), 꽃등이 사용되면서 그 發展의 樣相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다.

## IV. 文樣

本稿의 文樣은 中國繪畫 및 옷칠家具에 의거하여 人物圖·山水圖·花鳥圖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프랑스 家具文樣 역시 그 영향하에서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옷칠가구의 인물도는 주로 일개인의 肖像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素材와 함께 나온다. 즉 '宮殿의 모습' '庭園이나 건축물과 함께 나오는 인물도' '사냥과 騎兵의 장면' '山水人物圖' '農民의 모습'이 그것이다. 그 중 '宮殿의 모습'은 단골주제로 나무, 화초와 함께 한적하고 평화로운 中國 情趣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文樣의 표현방법은 하나의 전면을 가득 메우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산수인물도'에서는 옷칠바탕의 餘白이 보다 많이 보여 대조적이다. 인물을 주제로 한 가구는 그 다양한 주변소재와 함께 量的으로 많았던 것으로 짐작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표현된 사

20) Faye, A.D., 「Les Meubles en Laque Faits en Chine pour l'exportation», (Les Antiquaires au Grand Palais), XII<sup>e</sup> Biennale Internationale, Paris, (20/Sep. ~ 7/Oct. 1984), P. 60.

21) Jarry, M. 1981, P. 133.

22) Beurdeley, C. et M. 1979, P. 140.

23) Jourdain, M. & Jenyns, R.S. 1950, P. 14.

24) Koechlin, R. 1910, PP. 9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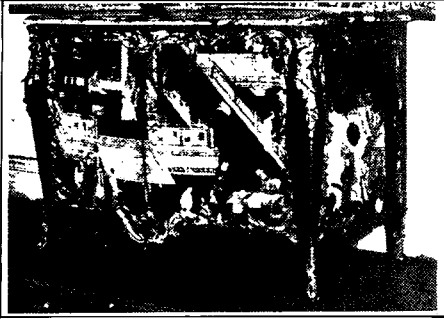
25) Beurdeley, C. et M. 1979, P. 130.

26) Jourdain, M. a Jenyns, R.S. 1950, P. 19.

27) Verlet, P. (1982), P. 31.

28) Jarry, M. (1981), PP. 163-166.

29) 「Le Louis XV chinois」 <connaissance des Arts> PP. 33-34.



위<사진 2-1>commode-공벨의 모습 아래<사진 2-2>commode-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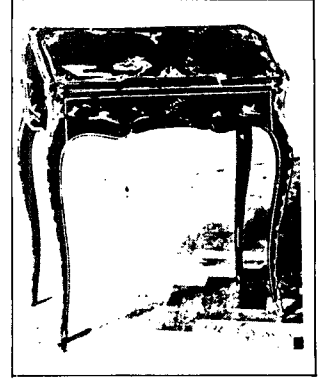
람의 모습이 타피스트리나 천 등의 거저된 中國人과는 달리 매우 사실에 가까움은 그 공급원이 확실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山水를 주제로 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꽃·새와 함께 繪畫를 보는 듯한 山, 매우 남성적인 山, 面보다는 線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纖細한 山 등이 寫實的이거나 때로는 약화되어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가구들은 많은 餘白 내지 검정색 옷칠위의 금빛 浮彫裝飾을 하고 있어 일본의 영향이 더 짙게 나타나고 있다.

花鳥圖는 다섯종류의 中國産 옷칠가구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어 그만큼 애용되었던 주제이다. 프랑스가구의 花鳥文樣은 國화와 백조, 매와 까치 및 國화, 바위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모란·국화·부용, 竹과 새·나비 등 중국 옷칠에 충실한 예, 또한 석류꽃·열매와 바위·새·나비 등이 실제모습을 보듯 寫實的이고 繪畫的인 예, 때로는 마케트리(marqueterie)에서 보듯 裝飾的이고 平面的인 모습 등 다양하다. 이외에도 中國花鳥圖의 소재와 재료만 빌렸을 뿐 西歐化된 모습의 바위와 모란꽃은 中國模倣에서 벗어나 독립된 의미의 프랑스 옷칠가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양상은 매우 프랑스적인 옷칠색과 꽃의 모습으로 발전되는데 이는 새로 개발된 베르니 마르맹의 옷칠과 함께 조개 및 꽃으로 요약되는 로코코양식이 합하여져 새로운 옷칠가구의 장르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옷칠가구는 中國繪畫·家具가 갖는 각 소재의 意味·象徵性 및 뜻의 추구보다는 단순히 소재가 주는 즐거움으로, 가구속의 그림으로 中國文樣을 이용하였으며, 특히 꽃 주제는 이들 가구로써 변모가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사진 2-4>armoire-신분인물도



<사진3>신수를 주제로 한 가구 secretaire

## V. 結論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中國옷칠가구의 影響 하에 프랑스 가구는 初期의 材料, 文樣面에서 거의 模倣하는 段階에서 탈피, 오랫동안의 材料開發과 함께 완벽한 그들의 가구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용된 文樣은 中國가구의 그것과 大同小異하며 材料는 원래의 中國 옷칠판 (coromandel 옷칠, 회화수법의 옷칠이 主從을 이룸)과 그들의 開發品 즉, 베르니 마르맹 등이다. 색은 검정색 바탕위에 금빛 또는 多彩色 장식 이 대부분이며 간혹 주칠바탕의 것도 눈에 띈다. 후에 그들의 칠은 開發되면서 색의 種類가 많아진다.

옷칠이 사용된 가구는 역시 18세기에 등장한 코모드(commode-설합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당시 유행이었던 시놉트리, 가구기술의 發達과 함께 완벽한 美의 演出을 낳았던 것이다. 이 commode 이외에도 armoire(장), emcoignure(구석에 놓는 세모꼴 장), Secrétaire(글쓰는 작은책상), bureau(사무용책상), table, chiffonniere(작은탁자), clavecin(합시코드)에도 옷칠사용의 예는 있으나 그 수가 현격히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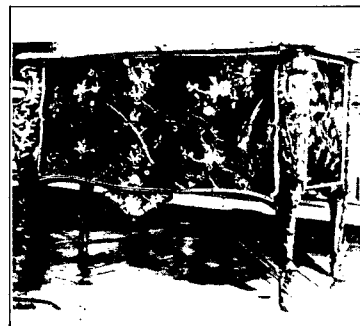
섬세한 S자형의 로코코 양식, 이를 지지하며 裝飾하는 갖가지 形態의 화려한 금빛 청동주조장식, 中國에서 건너온 옷칠재료와 문양, 이 화려한 세요소는 서로를 해치지 않고 돋보이게 하면서 家具史의 훌륭한 章을 마련했던 것이다. 다시말해 18세기 외국으로부터 온 ébéniste들, 이 로인한 가구산업의 育成, 機械를 도입한 生産方法은 로코코 양식과 並行하여 人間尺度에 알맞은, 그리고 建築의 일부분으로 감지하게 된 아름다운 가구를 生産하게 되었고 이에 併合하여 시놉트리 특히 옷칠가구의 완벽한 한 章이 열려 東西洋 美의 合致點을 낳았다.

## 參考文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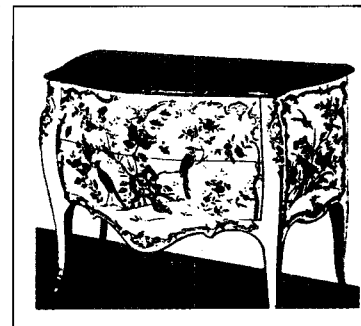
1. Beurdeley, C. et M., Le Mobilier Chinois, Friburg, O.L.F., 1979
2. Bousquet, J.-P., La Laque, Paris, 1980
3. Connaissance des Arts, Le XVIIIe Siècle Français, Collection



<사진 4-1>Commode



<사진 4-2>Commode



<사진 4-3>Commode



<사진 4-4>Encoignure

- 「connaissance des Arts」, 1956.
4. Cordey, J., Inventaire des biens de Madame de Pompadour, rédigé e après son décès, Paris, 1939
  5. Cordier, H., La Chine en France au XVIIIe Siècle, Paris, 1910
  6. Courtois, M., La Peinture Chinoise, E.R.L., 1967
  7. Fraisse, J.A., Livre de Dessins Chinois tirés d'après les originaux Perse, des Indes, de la Chine et du Japon, Paris, 1755
  8. Gruber, A., Chinoiserie : l' influence de la Chine sur les Arts en Europe, XVIe-XIXe Siècle, Bern, 1984
  9. Guerin, J., La Chinoiserie en Europe au XVIIIe Siècle, Paris, 1911
  10. Havard, H., Dictionnaire de l'Ameublement, Tome I, Chinoiserie, Paris, (S.d).
  11. Honour, H., Chinoiserie, The Vision of Cathay, London, 1961/2.
  12. Huth, H., Lacquer of the West, the History of a Craft and an Industry 1550-1950, Chicago and London, 1971
  13. Jarry, M., Chinoiserie, Le Rayonnement du goût Chinois sur les Arts Décoratifs des XVIIe et XVIIIe Siècles. Fribourg, 1981
  14. Jourdain, M. and Soame Jenyns, R., Chinese Export Art in the 18th Century, London, 1950
  15. Koechlin, R., 「La Chine en Europe au XVIIIe Siècle, "Gazette des Beaux-Arts, Paris", 1910
  16. Pillement, J., Livre de Chinois, Paris, 1759-1773
  17. Verlet, P., Les Meubles Français du XVIIIe Siècle, Tome II, Ebénisterie, Paris, 1956
  18. Verlet, P., Les Meubles Français du XVIIIe Siècle, PUF, Paris, 1982
  19. Connaissance des Arts, 「Les Paravents de Coromandel」, no 20, Octobre 1953
  20. Connaissance des Arts, 「Le Louis XV Chinois」, no 43, Septembre 1955, pp. 30-35.
  21. Faye, A.D., 「Les Meubles en Laque Faits en Chine pour l'exportation,」 <Les Antiquaires au Grand Palais>, Xlle Biennale Internationale, Paris (20/Sep.-7/Oct. 1984).
  22. 「Le goût Chinois en Europe au XVIIIe Siècle」.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1910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발행도서 안내

의장기사 1.2급 대비

室內디자인 總說

실내디자인론
색채학
인간공학
건축재료
건축일반
건축환경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도서출판위원회 편  
국배판 862면 정가 20,000원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발행도서 안내

의장기사 1.2급 2차 실기시험대비

室內디자인 實務解說

실내디자인실무
시공실무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도서출판위원회편  
국배판 286면 정가 12,000원